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禮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로 출발하는 새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존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
제17대 장로 5명 / 제16대 안수집사 / 제15대 권사 선출

항존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립니다. 장로 후보 8명을 대상으로 OMR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 공동의회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6대 안수집사와 제15대 권사를 OMR 투표를 하여 참여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2006년 5월 18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모든 진행과정이 은혜롭게 되도록, 상처받는 자 없고 또한 교만한 자 없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024 흥해작전-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6.6(목)-6.22(토) am 5:30-06:00 강사:손달익 위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6.17(월)-6.22(토) am 05:00 -06:00

흥해작전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기도로써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나라와 교회가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4대 담임목사 청빙 및 국가의 안정,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의 회복,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흥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운동"입니다. 2024 흥해작전의 자세한 내용은 3, 4면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 주제성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애굽기 13:21~22)
- 주제 찬송: 401장(주의 곁에 있을 때)
- 여는 예배: 6. 2(주) 찬양예배
- 감사 예배: 6.23(주) 찬양예배
- 실천 사항
1)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자
2)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3)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하자

새가족 환영회
대상:2024년 1월-5월까지
새가족부 수료자
언제:2024. 5. 26(주일)
2부예배 후 802호
새가족환영부

신임교역자

영·유아부를 지도하던 박지연 전도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5월 12일자로 새로운 교역자 성선혜 전도사가 부임하였습니다.



성선혜 전도사

- 약 력-
-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M.Div.)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예배설교학 졸업(Th.M.)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회복되는 가정, 존엄한 노후

창 47:1-12



손달익 위임목사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십계명의 하나로 주신 하나님은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좋은 세월 다 지나갔고 뜨겁던 가슴도 식었고 몸은 불편한데 남은 날마저 길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그 남은 날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동안도 소중히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고 흔한 것보다 희귀한 것이 더 소중하듯 젊은이들의 많은 세월보다 노년의 짧은 세월은 더 소중합니다. 이

시기는 가슴 속 회한을 치유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삶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평화와 명예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끝없는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고 대홍년의 기근에 시달리던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야곱은 그 후 17년을 평화롭게 자손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보다가 소망 중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장엄한 절차를 거쳐 고향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야곱의 노년의 삶이 존엄했습니다.

만 오하려 국가의 원로처럼 바로를 축복합니다.(10절) 그는 그렇게 원로의 모습을 보이며 당당하게 영적 권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그네요, 피난민이요, 제왕에 대한 신하의 입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지 양보나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세의 원로가 되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생 말년에 축복하는 사람의 여유를 가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일생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했고, 조상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9절) 그는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치면 본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반면 바로는 세상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죽은 후에도 영생활 것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바로를 보면서 야곱은 오하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노년기가 품격 있고 존경스럽고 명예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인생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삶 전체가 명예로워지게 됩니다.

**삶이 무르익어갈수록 신앙적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혼돈과 무절제한 세상 문화 속에서 맑고 투명하고 선명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 명예롭고 존엄한 노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가정의 회복, 노후의 영광

야곱의 삶을 가장 명예롭게 만들고 그의 노후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은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치명적 실수는 형 에

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입니다. 결국 에서는 믿음을 떠나 이방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을 겁니다.

노년의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당사자인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7-8). 야곱 또한 눈을 감으며 요셉에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창 50:17)고 유언했습니다.

결국 이 가문은 거대한 민족으로 부활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삶이 빛나는 것은 그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결속하여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형제들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여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으며 야곱은 행복한 말년을 보내다가 평안한 죽음의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길게 요셉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파멸의 위기가 왔을 때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통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영적 품위를 지니며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후를 존엄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가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1. 분명한 정체성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 세계를 건설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미개한 문명이라고 하며 유목민을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은 왕 바로 앞에서 생업이 무엇이나는 바로의 질문에 ‘종들은 목자이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당당함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창 48:21).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끝까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창세기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모태’라고 했습니다. 족장들은 천지를 유랑하면서도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종교 세력은 막강한 정치 경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종교 세력 앞에서 야곱의 신앙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대범하게 밝히고 평생 그 신앙을 유지하며 복잡한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았으나 애굽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노후를 명예롭고 품격 있게 만든 첫 번째 요인입니다. 삶이 무르익어갈수록 신앙적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혼돈과 무절제한 세상 문화 속에서 맑고 투명하고 선명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 명예롭고 존엄한 노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축복하고 살아가는 영적 권위의 사람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록 불안하고 정처 없는 난민이었지

양정호 목사님께

양정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재미난 말씀 전하실 때가 가장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가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으 있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끊기게 되면서 맥 끊기시고 당황스러우시지요? 이제 부터는 질문이나 얘기 할 때는 때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당황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 가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듯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추고서 조용한 곳에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다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미와 같다고 느끼며, 목사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일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신준하 성도 (사랑부)



양정호 협동목사 (사랑부 지도)

2024년 5월 5일
신준하 올림

2024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홍해작전을 아시나요?



이승준 안수집사 (2024 홍해작전 기획분과장)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신앙적 자세를 본받아 우리 앞에 놓여진 국가, 사회,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홍해(기도제목들)를 매년 6월 6일부터 대략 15여 일간 새벽기도회로 다함께 모

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던 운동을 홍해작전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작전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홍해작전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 일까요?

홍해작전이 시작되었던 1991년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이 있었고, 교회 개혁과 부흥에 대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강한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다 같이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용맹한 군인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역들을 치열하게 감당해 내며 지난 날들을 헤쳐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어보니, 지

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전투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던 그때와 달리,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지켜 내기 위한 영적인 방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전례 없이 가장 많은 문제들로 그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장 절체절명한, 가장 힘든 그런 한 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해 보다 풍요로워졌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교회가 처한 문제들,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산적한 문제들은 그 어느 해 보다 복잡하고 답이 없어 보이며 그리고 더 솔직히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무기력하고 답 없는, 그런 어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신론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개인적이며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참 여러 부분에서 계속 침식되고 전염되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현재의 사회나 지성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정신에 의해 머지않아 우리 세대 안에 율교회가 추억이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다 함께 모이길 힘쓰며, 마치 광야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여 주셨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표적같이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잘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홍해작전은 여느 해의 당연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되는 교회 행사로 대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선방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직면한 많은 이슈들 특히, 4대 목사 청빙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번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출애굽기 13장 21-22절의 말씀을 주제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6월 6일(목)-22일(토) 총 15일간 진행됩니다. 다함께 홍해를 건너 우리 개인과 가정의 신앙적 선방은 물론 우리 앞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과 이웃이 함께 하는 2024 흥해작전

행사	구성	내용	활용
전교인 스탬프북	여정표 1주: 기도제목을 찾으라 2주: 깊은기도로 나아가라 3주: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1일 1 달란트 받기 흥해 여정 완료 시 max 15달란트	흥해 장터에서 흥해 Pay로 사용가능 * 흥해 장터는? 6/22(토) 오전7-9시 8층 만나홀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교역자/장로, 교구 식구 교회학교/찬양대원/예배위원 등, 나의 사랑하는 가족. 매일 만나는 동료의 기도제목 받기	5그룹에 대한 10명 달성 시 5달란트	
행사	내용	진행	시상
사행시 투표	5대 기도제목으로 구성된 4행시 흥해작전, 가정회복, 담임칭빙 다음세대, 배려축복	교구별 보드에 전시하여 투표 *자유 참여 & 자유 투표	전교인 투표로 선정 3개팀 선정,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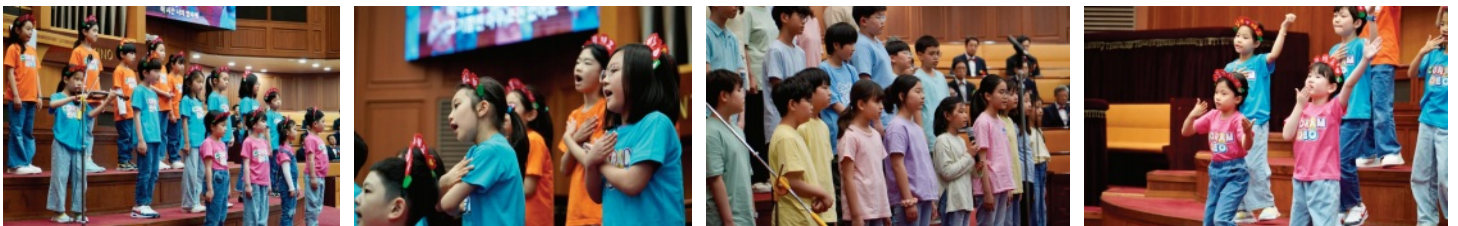
행사	진행	비고
이웃초청음악회	23일(주일) 찬양예배 후 서울교회 2층 본당 더불어배움재단 러브레터, 솔리중창	서울교회 전교인과 이웃이 함께 하는 음악회
행사	진행	비고
응모권 추첨	6/6, 6/15, 6/22 단 3회 응모함에 제출 23일 이웃초청 음악회 시 추첨	전교인 응모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청년부는 밤양갱을 직접 만들어 교회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교육1국 어린이들은 예배 입장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어버이주일을 맞아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4강: 인간의 본성 (2)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한 결과 본성이 부패하여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이 되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였다는 말은 타락하였다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부패’나 ‘타락’이나 모두 ‘온전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 곧 선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순종한 결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상황에서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운전을 잘 하니깐 관촬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교통신호를 어기고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혀 엔진이 주저앉아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차와도 같이 되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견인차가 와서 끌여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과 같이 스스로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폐차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망가진 상태의 차를 만든 회사에서 견인해 가서 엔진도 바꾸고 프레임도 바꾸고 필요한 모든 부품을 바꾸어서 사고난 이후에 견인차에 끌려왔을 때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의 모습마저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차가 된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변화된 상태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문답에

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패 또는 타락으로 표현하는데, 신학사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타락’이나 부패의 상황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 죄하여 타락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과 같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비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일의 부패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썩어서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반 이상이 썩었으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도 1/5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생김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긴장관계입니다.

이 논쟁에서 전통 및 정통으로 인정받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모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지닌 심각한 죄성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빠졌었던 경험이나 사생

아를 낳아 키웠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죄악을 즐기기까지 했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 배밭에서 배도둑질 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공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훔치게 됩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선한용 역,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83.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는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다음의 4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타락 전에는 죄를 지을 능력이 있는 상태(posse peccare), 타락 후에는 죄를 안지를 능력이 없는 상태(non posse non peccare),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죄를 안지를 능력이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에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상태(non posse peccare).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지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

중국 사상사에서 성선설과 성악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간의 논쟁으로, 종교개혁사에서는 칼뱅과 아르미니우스 사이의 논쟁으로 쟁점화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논쟁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인간의 책

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인간의 책 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제삼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이미 끝난 논쟁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인간의 원죄가 유전된다고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됩니

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본성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유혹을 받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어 본성이 변하게 되었고,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최초의 사람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 6교구 배종현 군·임예은 양
(임종태 은퇴안수집사·이복희 성도 장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인 제일교회 소성전 패밀리아 채플홀



- 7교구
박준희 안수집사(사랑부 부감)·김다운 양
(고 박영배 집사·김학자 집사 아들)
5월 25일(토) 오후 12시 서울교회 본당

식사 제공



- 9교구 이선우 군·서현희 양
(이영훈 안수집사 김숙화 성도 아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빌라드지디청담 에스파체 앙피레 단독홀



-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김인숙 은퇴권사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5.1	도르가, 루디아, 뱌뵈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8	마리아
5.12	자원자	바울, 엘리야	5.15	석가탄신일
5.19	자원자	모세	5.22	리브가, 에스더(오후 2시-3시)
5.26	자원자	이삭	5.29	권사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5월20일	월	대하 29-30	민29	시73	사21	벧후2
5월21일	화	대하 31-33	민30	시74	사22	벧후3
5월22일	수	대하 34-36	민31	시75,76	사23	요일1
5월23일	목	스 1-2	민32	시77	사24	요일2
5월24일	금	스 3-7	민33	시78:1-37	사25	요일3
5월25일	토	스 8-10	민34	시78:38-72	사26	요일4
5월26일	주일	느 1-4	민35	시79	사27	요일5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성령충만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 교회의 중직으로 피택된 이들이 신실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며, 파송선교지와 전도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소서.
-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